

광릉요강꽃



글 : 김재황(詩人)

사 진 : 김정명(寫眞作家)

學 名 : *Cypripedium japonicum* THUMB.

들꽃들을 보면, 그 모양과 색깔이 어찌면 그리도 다양한지, 조물주의 솜씨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야생란 중에 이것 보라는 듯이, 요강을 달고 있는 게 있다니, 그것도 ‘늑요강’이 아니라, ‘백자 요강’을 내보이는 꽃이 있다니.

광릉요강꽃은 개불알속(屬) 식물. 어찌 보면 질부채를 두 개 마주 펼친 듯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주름치마를 마주 펼치고 있는 듯도 한, 그 잎새가 또한 특징적이다. 그 때문에 일명 ‘치마난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릉요강꽃의 땅속줄기는 대나무 뿌리처럼 마디를 간직하고 있으며, 두 잎 줄기에는 어린 티를 못 벗은 승승한 털이 돌아 있다. 4월 경, 두 개의 넓은 잎새 위에 5cm 정도의 꽃이 귀엽게 피어난다. 그 꽃의 생김새도 희한하려니와, 한가롭게 늘어진 느긋함이 부럽다. 얼핏 보아서 개불알꽃을 닮았지만 둥글게 늘어진 꽃잎 가운데에 깊은 골이 있는 게 다르다.

광릉요강꽃은 우리나라 특산물로, 경기도 양주군 광릉(光陵)의 죽엽산(竹葉山)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주로 경기 북부 지역에 분포한다. 어두컴컴한 숲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광릉요강꽃을 만나면, 불현듯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한 농부가 장으로 소를 팔러 갔다가, 오랫동안 친구를 만났다. 모처럼 친구를 만났으니, 어찌 한 잔 술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마침 주머니에는 소를 판 돈도 두둑한지라, 두 사람은 권커니 잤거니 밤 늦도록 술을 마셨다.

농부가 친구와 헤어져서 비틀거리며 집에 당도했을 때, 아내는 발일이 꽤나 고되었던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농부 또한 아내 옆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농부는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깨었다. 농부는 몽롱한 정신에 더듬거리려 요강을 찾았다. 요행이 요강인 듯한 물건이 손에 잡히기에 그는 시원히 오줌을 누었다. 그 때였다. ‘앗, 뜨거. 앓 뜨거’ 하는 어린 아들의 소스라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요강인 줄 알았던 게, 다름 아닌 어린 아들의 머리였다.